

# 해외석유정보

본란은 해외석유산업에 대한 동향과 정보를 파악하기 위하여 석유협회에서 발간중인 석유정보다이제스트 내용을 발췌하여 실은 것임.  
- 편집자 주 -

## 아르헨티나의 에너지사정

### 해외석유회사 참여

아르헨티나는 베네수엘라, 멕시코, 브라질 등에 이은 남미의 대산유국이며, 천연가스 또한 베네수엘라, 멕시코 다음 가는 생산량을 자랑한다. 아르헨티나는 브라질, 칠레, 파라과이, 우루과이에는 원유를 공급하며, 최근 완성된 천연가스 파이프라인으로는 칠레, 브라질에 천연가스를 공급함으로써 경제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정부는 1990년의 금융위기 후에 국영석유·가스 산업의 운영을 재검토, 민영화정책을 내걸었다. '99년에 아르헨티나 국영석유회사 YPF는 스페인의 Repsol과 합병, 민영회사인 「Repsol·YPF」로 다시 태어났다.

동사는 최근까지 국내 주유소 세어의 약 50%를 차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2000년 이후, 브라질의 페트로브라스, 칠레의 ENAP, 아르헨티나의 페레스 컴팩이 아르헨티나에 진출한 이후, 국내 연료유 판

매세어가 감소했다. 현재, 아르헨티나 국내에서는 외자계 석유·가스회사의 연료유 판매부문 경쟁으로 석유·가스 개발경쟁이 격화되는 등, 경제를 자극하기 시작하고 있다. 정부도 실력이 있는 외자계 석유·가스회사의 진출을 환영하고 있어 아르헨티나의 경제가 호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방에서는 상류부문 개발과 관련해 외국기업이 개발부문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개발이 진전되면 지방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줄 것이다. 2000년 이전부터 미국 기업이 천연가스와 IPP를 조합한 project를 추진하고 있다. project가 본격화되면, 인근 남미 각국으로 공급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경제파급효과는 크다. 아르헨티나 정부는 외자계 석유·가스산업의 진출이 아르헨티나의 경제회복과 세수증가로 연결되어 경제회복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외자계 석유회사 진출에 의한 치열한 경쟁은 국내경제 회복의 열쇠이며, 아르헨티나의 석유·가스산업 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 에너지사정

아르헨티나의 원유 확인매장량은 2000년말 현재 3.1억Bbl(세계 세어의 0.3%), 생산량은 85.0만 b/d(3.5%), R/P는 10.5년이다. 석유생산량은 '90년 51.5만b/d, '91년 52.5만b/d, '92년 58.5만b/d, '93

년 63.0만b/d, '94년 69.5만b/d, '95년 76.0만b/d, '96년 82.5만b/d, '97년 87.5만b/d, '98년 89.0만 b/d로 최근 10년간 가장 높은 생산량을 기록했다. 그러나, '99년에는 85.0만b/d, 2000년에는 82.0만b/d로 떨어졌다.

**석유소비량**은 2000년이 43.0만b/d(세계 세어의 0.6%). '90년 39.6만b/d에서 '91년에는 41.0만b/d, '92년에는 41.5만b/d, '93년에 43.0만b/d로 늘어났지만, '94년은 41.5만b/d로 일시적으로 감소했다가 '95년은 41.5만b/d, '96년 43.0만b/d, '97년 45.0만 b/d, '98년에는 46.5만 b/d로 다시 증가했다. 그러나, '99년에는 44.0만b/d로 감소했다.

**경제능력**은 2000년 64.0만b/d(세계 세어의 0.8%). '90년 69.5만b/d, '91년 69.5만b/d로 보합을 유지했지만, '92년 71.0만b/d로 늘었고, '93년 71.0만b/d, '94년 66.5만b/d, '95년 66.0만b/d, '96년 65.5만b/d, '98년 65.5만b/d, '99년 66.0만b/d를 기록했다.

**천연가스 확인매장량**은 2000년말 현재 26.4조 m<sup>3</sup>(세계 세어의 0.5%), R/P는 20.1년이다. 생산량은 2000년에는 373억m<sup>3</sup>(세계 세어의 1.5%). '90년 178억m<sup>3</sup> 이던 것이 '95년에는 250억 m<sup>3</sup>으로 5년간 30% 이상 증가했다. 그 후, '96년 266억m<sup>3</sup>, '97년 274억 m<sup>3</sup>, '98년 296억m<sup>3</sup>, '99년 346억m<sup>3</sup>으로 계속 늘어, 2000년에는 10년 전의 2.09배로 증가했다.

**천연가스 소비량**은 2000년에는 331억m<sup>3</sup>(세계 세어의 1.4%)이다. '90년 203억m<sup>3</sup>, '91년 221억m<sup>3</sup>, '92년 223억m<sup>3</sup>, '93년 236억m<sup>3</sup>, '94년 243억m<sup>3</sup>, '95년 270억m<sup>3</sup>, '96년 286억m<sup>3</sup>, '97년 285억m<sup>3</sup>, '98년 305억 m<sup>3</sup>, '99년 337억m<sup>3</sup>으로 증가 일로를 걷고 있다.

### 정치·경제정세

아르헨티나는 메넴 정권이 자유개방경제정책을 내 걸고, '94년에 달러 태환법을 도입해 경제안정을 가져왔다. 그러나, 부정부패 등으로 역대 대통령들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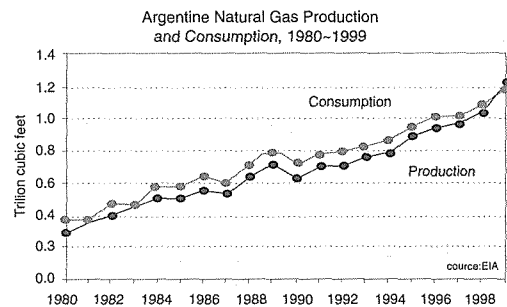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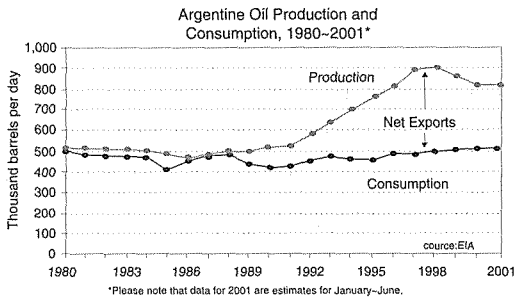
실각, 그 후 로드리게스 임시 대통령의 선출을 거쳐 2001년 1월부터 페론당의 에드워드 두알데가 대통령, 호르헤 카피타닛치가 수상에 취임했다.

경제악화 해소를 바라는 국민의 기대가 두알데 대통령에 모아졌지만, 달러태환제가 폐지되고, 취임 이전부터 도입이 결정된 변동환율제로 이행하자, 경제에 새로운 암운이 드리워졌다. 달러태환제 시대 1\$=1페소에서 변동환율제 시행시 1\$=2페소대가 되었다. 대외채무이행 연기가 오래 지속되어 경제상황이 악화, 해외 외환시장에서도 페소화가 평가절하되어 점점 더 화폐가치가 하락해갔다. 4월에는 1\$=3페소 대까지 떨어져 페소화 하락·달러화 상승으로 아르헨티나 통화 페소화의 대외 화폐가치 하락이 심각해져 아르헨티나 경제는 빈사상태에 빠지게 되었다.

2002년 5월에는 IMF가 아르헨티나의 금융위기대책으로 80억\$의 추가지원을 타진했다. 아르헨티나 정부는 이를 받아들여 눈 앞에 닥친 default 위기를 피했다. 정부는 예금유출방지법 성립이나 경제재정 장관 취임을 거쳐 변동환율제를 계속 유지했지만, 정부의 의도대로 페소화의 對달러 시세가 1\$=3페소화 전후로 안정될 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다.

경제성장률은 '97년에는 8.1%로 높았지만, '98년 3.9%, '99년 -3.4%, 2000년 -0.5%, 2001년에는 -4.0%로 침체가 계속되고 있다. 2000년의 실업률은 14.7%로 매우 높다. 2000년의 총수출액은 264.1억 \$, 수입은 252.5억\$이다. 주요 무역상대국을 보면, 수출은 브라질, 미국, 칠레, 스페인 등이고, 수입은 브라질, 독일, 중국 등이다. 주요수출품은 석유·천연가스, 곡식, 식료제품, 수송기기, 수입품은 기계, 화학제품, 수송기계, 플라스틱, 고무 등이다. '98년의 경제협력의 주요 원조국은 일본 30.8%, 독일 16.5%, 프랑스 8.8%, 캐나다 1.1%, 벨기에 1.1%이다.

(Oil Report, 2002. 5. 27)



## 아태지역의 중단기 원유 수급전망

'90년대 중반이후 아태지역의 원유생산은 정체되고 있다. 불확실성이 많이 있지만, 동 지역의 원유생산은 향후 10년간 증가하기보다는 감소할 것 같다. 한편, 동 지역의 총원유 생산량 중에서 경질 저유황 원유의 비중도 낮아질 것이다.

아시아의 원유수요는 주로 정제량의 증가에 따라 빠르게 늘어날 것이다. 아시아의 원유수요 증가의 대부분은 수입에 의존하게 될 것이며, 수입의존도는 현재 59%에서 2010년에는 70%이상으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시아지역의 저유황유 생산이 감소함에 따라 아태지역의 원유수입수요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중동의 중요성은 어떠한 시나리오하에서도 변화가 없을 것이지만, 대서양연안원유의 역할도 중요하다.

아태평양지역은 수년간 다량의 석유를 순수입해 오고 있다. 중국의 순수입이 크게 증가하고 있고 향후 10년 전후로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가 석유순수입국으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아태지역은 장차 불확실한 원유수급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 수요, 수입의 변화

최근 수년간 아시아 원유시장은 변화가 거의 없었다. 동 지역은 매년 7~8백만B/D의 원유를 생산하고 있으며, 원유수요와 역내생산의 차이물량은 수입으로 충당하고 있다. 그러나 변화하고 있는 것은 원유수요와 수입의 구조이다. 원유처리의 변화는 아시아 원유시장의 취약성 또는 경직성을 나타내 준다.

본 고에서는 아시아의 원유생산, 수출가능량, 수입수요량 및 전반적인 원유수급상황을 다루고자 한다.

### 원유생산

중국의 Shengli유전의 원유는 유황성분이 많지만, 아시아원유의 트레이드마크는 저유황이라는 점이다. 아시아지역의 저유황원유는 또한 중질과 경질 원유로 구분된다.

호주, 인도네시아, 파푸아 뉴기니아 및 기타 일부 소국들은 경질 저유황 원유의 대부분을 생산하고 있다. 중국, 베트남 등은 重質(中質포함) 저유황 원유를 생산하고 있으며, 인도네시아, 인도 및 부루네이는 경질 및 중질 저유황 원유를 생산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볼 때 중질 저유황원유는 아태지역 총 원유생산량의 약 4분의 3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경질 저유황원유의 비중은 2000년 이후 감소해 오고 있다. 단기적으로 호주의 경질 저유황원유 생산량이 소폭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향후 5~10년 기간동

안 경질 저유황원의 비중은 2000년에 비해 5%이상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2001년 아태지역의 원유생산은 2000년도와 비슷한 770만B/D에 달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동 지역 국가 중 중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인도 및 호주 가 대산유국이다. 이들 국가의 생산량은 2001년 동 지역 총생산량의 89%를 차지하였으나, 동 물량은 1980년대 중반 생산수준에 비해서는 95%정도에 미치는 수준이다.

East-West Center의 원유수급전망(기준케이스)에 따르면, 동 지역의 원유생산은 호주, 인도네시아 및 말레이시아의 생산감소로 인해 향후 5~10년 기간 동안 계속 감소하여 2005년에는 750만B/D, 2010년에는 690만B/D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준케이스는 동 지역의 기확인유전에 기초한 것이다.

그러나, 신규 유전발견을 가정할 경우(고생산케이스), 동 지역의 원유생산은 2010년 910만B/D로 증가할 수도 있다. 반대로 투자가 부진하여 기확인유전의 생산이 여의치 않을 경우(저생산케이스), 동 지역의 원유생산은 590만B/D로 감소할 수도 있다. 이러한 큰 차이는 중국, 인도네시아, 호주, 베트남 및 말레이시아 등의 불확실성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 수출가능량

국가별 원유 수출가능량은 원유생산량과 자체소요량의 차이 물량이다. 전체 아태지역의 원유수출가능량은 동 지역의 각 국가별 수출 가능량을 합한 것이다. 현재 동 지역의 주요원유수출국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베트남, 호주, 중국, 부르네이와 파푸아 뉴기니아등이다. 이들 수출국 중에서 베트남은 생산 원유의 99%를 수출하고 있으며, 자국에서 필요한 석유제품은 모두 수입하고 있다.

'80년대 중반 아태지역에서 두 번째로 많은 원유를 수출하던 중국은 1993 석유순수입국이 되었으며 현재는 다량의 원유를 수입하고 있다. 호주는 제법

많은 원유를 수출하면서 동시에 중동원유를 많이 수입하고 있다.

2000년 아태지역은 220만B/D의 원유를 수출하였다. 수출가능물량은 <표-1>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5년 160만B/D, 2010년에는 100만B/D이하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 역내소요량

일본과 중국에서는 원유를 직접 발전연료로 이용하기도 하지만, 아시아에서는 주로 정제원료로 사용된다. 2000년 아태지역은 1,810만B/D의 원유를 정제하고, 30만B/D의 원유를 발전 및 산업용(직접연소)으로 사용하였다. 2010년에는 원유 직접 연소량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정제처리량은 2,310만B/D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그림-1참조)

역내 생산량 외에 수입원유가 아시아 총 원유소비량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중요성은 점차 높아지고 있다. 역외원유 수입량의 증가는 역내 원유공급의 정체로 인해 역내 원유수요 예상 증가량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2000년 아태지역에서 소비된 총1,840만B/D의 원유 중 약 52%는 중동에서, 7%는 서아프리카, 러시아, 중남미와 알라스카 등에서 수입하였다. 아태지역 자체에서 생산한 원유는 총소비량의 41%였다.

장래 원유수입 수요량은 향후 10년간 역내의 정유공장 건설에 크게 좌우될 것이다. East-West Center의 역내 정유산업조사에 따르면, 일부국가에서는 정제 및 고도화시설능력의 확충계획을 계속 추진할 것이다.

2010년 아태지역의 총 원유수요는 2,310만B/D로 2000년에 비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총 소요량 중 중동으로부터의 수입량은 2000년 52%에서 62%로 높아질 것이며 기타국으로부터의 수입량은 2000년 7%에서 8%로 미미한 증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아태지역은 역내원유소요량의 30%밖에

생산하지 못할 것이다.

### 중동원유공급의 비중

중동은 아시아 원유공급에 있어서 막대한 역할을 하고 있다. 2000년 아태지역의 총 원유수입량중 중동은 74%를 차지하였으며, 나머지는 역내수입 및 역외국가, 주로 대서양연안국으로부터의 수입이었다(그림-2참조).

2010년에는 중동은 전 아시아지역의 총 원유수입의 거의 84%를 공급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역내수입의 비중은 5%로 낮아지고 기타역외수입은 11%로 증가할 것이다.

### 대서양 연안국 공급

중동원유이외에 대서양연안지역, 주로 서아프리카로부터의 원유수입은 최근 들어 증가하고 있다. 사실 대서양연안 원유는 아태지역의 비중동 원유수입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러시아와 중앙아시아로부터의 수입은 미미한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대서양연안 원유의 매력은 중동원유에 비해 유향 함량이 낮고 특히 상대적으로 가격이 투명하다는 것이다.

아태지역은 석유제품의 규격강화로 저유황 원유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역내의 저유황원유 수출가능물량이 적기 때문에 아태지역은 아프리카와 북해로부터의 저유황유 수입이 증가하고 있다.

아태지역은 2000년 대서양연안지역으로부터 120만B/D의 원유를 수입하였다. 대서양연안 원유의 주요 4대수입국으로는 인도가 총물량의 28%, 중국이 26%, 한국이 22%, 대만이 15%를 수입하였으며, 기타국들이 나머지 9%를 수입하였다.

중국을 제외하고 나머지 주요 3개 수입국은 국내 석유제품의 규격강화와 중동원유로는 국내규격에 맞는 제품을 생산할 수 없는 정제시설로 인해 원유수입에 큰 영향을 받고 있다. 일부 정유회사들은 아프리

카 및 북해산 저유황원유 덕분에 정제시설의 추가투자를 회피해 왔다.

East-West Center의 분석에 의하면 현재 아시아의 저유황원유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최소 50만B/D에서 최대 150만B/D의 대서양연안 원유가 필요하다. 동물량은 Brent-Dubai원유의 가격차이에 좌우된다.

2005년 이후에는 러시아원유의 대아시아, 특히 대중국 수출이 증가하게 될 것이다. East-West Center의 전망에 따르면, 아태지역의 대서양연안 및 러시아로부터의 원유수입은 2005년 160만B/D, 2010년 190만B/D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 가운데 10~15%는 북해에서 수입될 것이며 나머지 90~85%는 아프리카에서 수입될 것이다.

### 수입의존도

석유의존도는 총 석유수요 중 석유수입량의 비중을 나타낸다. 그리고 총 석유수요는 원유처리량에 직접연소원유와 순석유제품 수입소요량을 합한 물량이다. 이러한 정의는 동지역에서 소비된 모든 원유와 제품을 파악하려는 것이다. 이밖에, 총생산량은 원유와 NGL 및 Condensate를 합한 것이며, 석유수입소요량은 총 석유수요와 생산량의 차이를 의미한다.

이러한 정의에 따르면 아시아의 총 석유수입의존도는 <표-2>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5년 이후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2000년 동 지역의 석유수입의존도는 61%였으며, 2005년에는 65%로 완만하게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2010년에는 수입의존도가 72%로 급상승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는 대부분의 아시아 국가들에게 매우 도전적인 상황을 야기하게 될 것이다.

### 결론

아태지역의 원유생산은 근년에 들어 정체상태에 머물러 있다. 1997~2000년 기간 동 지역의 원유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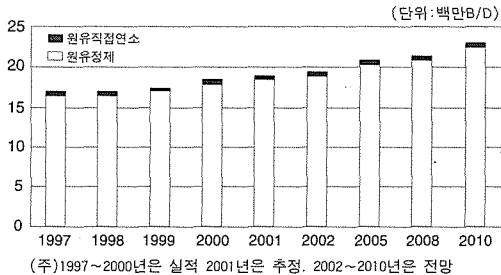
산은 겨우 72천B/D가 증가한 반면, 동기간 총 원유 소비량(정제처리 및 직접연소량 포함)은 180만B/D를 상회하였다.

동 지역의 이러한 생산과 수요의 격차 확대는 아태 지역의 원유수입 확대로 이어지고 있다. 향후 10년 기간 동안 특히 동 지역의 생산감소 시나리오의 경우 원유의 수급격차는 대폭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아시아 산유국들의 원유 수출가능량 역시 감소하는 반면, 동 지역에서 경질 저유황원유의 확보는 더욱 어려워질 것이다. 원유수입이 증가함에 따라 중동은 아시아의 확대일로에 있는 석유부족사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막중한 역할을 계속 수행할 것이며, 아울러 대서양연안 원유의 수입도 증가하게 될 것이다.

(OGJ, 2002. 4. 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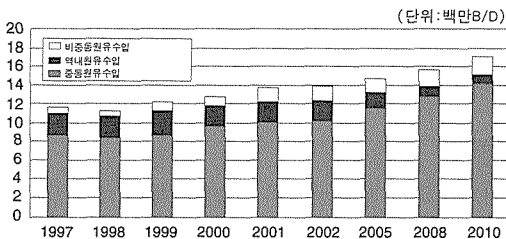
(그림-1) 아시아 원유수급전망



(표-1) 아·태지역 원유생산 및 수출가능량 전망

|       | 1999  | 2000  | 2001  | 2002  | 2005  | 2008  | 2010  |
|-------|-------|-------|-------|-------|-------|-------|-------|
| 원유생산  | 7,532 | 7,690 | 7,692 | 7,700 | 7,493 | 7,212 | 6,902 |
| 수출가능량 | 2,237 | 2,222 | 2,110 | 2,056 | 1,574 | 1,265 | 946   |

(그림-2) 지역별 원유수입량 전망



(표-2) 아·태지역 원유생산 및 수출가능량 전망

|        | 1999   | 2000   | 2001   | 2002   | 2005   | 2008   | 2010   |
|--------|--------|--------|--------|--------|--------|--------|--------|
| 원유생산   | 7,814  | 7,953  | 7,968  | 8,001  | 7,849  | 7,573  | 7,293  |
| 순석유수입량 | 11,860 | 12,564 | 12,728 | 13,005 | 14,716 | 16,694 | 18,668 |

(주) 원유생산 = NGLs, 컨덴세이트 포함

## 중국의 에너지사정

세계 최대 인구의 중국은 매년 7% 이상의 경제성장을 기록하고 있고, 에너지 소비량도 늘고 있다. 2001년도에는 휘발유 소비량이 일본을 웃돌았다. 2010년까지 7%대의 안정 성장을 유지해 중국의 사업규모가 배로 커지게 되면, 아시아에서 일본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수입대국이 된다. 중동석유의존도가 중국은 60%, 아시아 전체로는 70%로 높다. 에너지 안정공급 차원에서 중국은 석유비축 체제가 제대로 정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석유위기와 같은 공급위기가 발생했을 때 원유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크다.

중국의 WTO 가입으로 5개월이 지났는데도 중국은 국내산업에 주는 타격을 우려해 약속했던 관세 인하가 좀처럼 진전되지 않는다는 비난의 소리가 세계 각국으로부터 나오고 있다. 9억명이 종사하고 있는 농업이나 경쟁력이 약한 국유기업을 보호하려는 움직임도 있다. 13억명 시장의 중국은 매력이 있는데, 자동차가 보급되면 석유는 5년안에 고갈된다고 한다. 환경부하가 지금까지와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는 것도 감안해야 한다.

### 중국의 에너지사정

에너지 외교를 위해 중국은 3월부터 중동·아프리카

카 산유국으로 적극적으로 approach하고 있는 등, 에너지원 확보를 위해 활발히 움직이고 있다. 강택민 국가주석을 비롯하여 정부수뇌가 Iran, Lebanon, Oman, UAE, Bahrain, Saudi Arabia, Nigeria, Tunisia, Turkey, Egypt, Kenya 각국을 잇달아 방문하면서 경제협력을 약속하고 있다.

중동이나 아프리카 산유국은 인구 증가와 infrastructure 노후화에 직면하고 있어 투자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강택민 국가주석은 이란의 하타미 대통령과 4월 20일에 회담을 갖고 석유·가스전 개발협력 등 합의문서에 조인했다. Iran은 중국 수출용 원유의 최대 수출국(share 18%)으로 에너지 정책상 무시할 수 없는 중요한 나라이다. 중국 기업이 Iran의 철도사업에 이미 착수했고, 향후 경제협력이 더욱 확대될 것이다. Tunisia에서는 철도연장사업이 결정되어 Africa 최대 산유국 Nigeria에서는 발전소 건설 협력에 합의했다. Libya에서는 중국 기업의 유전개발에 합의했다. Saudi Arabia등 걸프협력회의(GCC)와 infrastructure정비 등 경제 관계 확대가 진행되고 있다.

**중국의 원유확인매장량**은 2000말 현재 240억 Bbl(세계 share 2.3%), 생산량은 324.5만b/d(4.5%), R/P(원유가채년수)는 20.2년이다. 아·태지역의 확인 매장량은 440억Bbl(4.2%)이기 때문에 반 이상을 중국이 차지한다. 아·태지역의 생산량이 797.7만 b/d(10.6%)이다. UAE보다 생산량이 많다. 원유가채년수는 아·태지역의 15.6년보다 약간 길다. 중국의 석유생산량은 '90년 당시 277.5만b/d로 2000년보다 16.9% 늘었다. '91년에는 283만b/d, '92년에는 284만 b/d, '93년에는 289만b/d, '94년에는 293만b/d, '95년에는 299만b/d, '96년에는 317만b/d, '97년에는 321만b/d, '98년에는 321만b/d, '99년에는 321.5만 b/d로 생산량은 늘고 있다.

**석유소비량**은 '90년에는 225.5만b/d로 생산량을 밑돌았지만, '91년에는 241만b/d, '92년에는 266만

b/d, '93년에는 291.5만b/d로 경제성장과 동시에 급증해 결국 생산량을 웃돌았다. '94년에는 314.5만 b/d, '95년에는 339만b/d, '96년에는 367만b/d, '97년에는 393.5만 b/d, '98년에는 404.5만b/d, '99년에는 441.5만b/d로 급증했고, 2000년에는 484만 b/d(6.5%)에 달했다. '90년 당시보다 배 이상 소비량이 늘고 있다.

**제품소비량**은 2000년에는 총 2억 5,340만ton으로 주요 내역은 휘발유 24.9%, 중간유분 35.5%, 중유 17.2%, 기타 17.2%를 차지하고 있다. '90년 당시 휘발유가 23.6%, 중간유분 26.8%, 중유 31.2%, 기타 18.4% 였기 때문에, 중유가 감소한 데 비해 중간유분 소비가 늘어나 소비 경질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석유정제능력**은 542.5만b/d로 세계 share의 6.6%를 차지하고 있다. '90년과 '91년에는 289만 b/d, '92년에는 304.5만b/d, '93년에는 333.5만b/d, '94년에는 356.5만b/d, '95년에는 401.5만b/d, '96년에는 422.5만b/d, '97년에는 456만b/d, '98년에는 459만b/d로 계속 늘었고 '99년에는 단숨에 540만 b/d 까지 늘어 일본을 제쳤다.

**원유처리량**은 2000년에는 422만b/d, 세계 share의 6.1%이다. '90년에는 215.5만b/d, '91년에는 228만b/d, '92년에는 242.5만b/d, '93년에는 257만b/d, '94년에는 255만b/d, '95년에는 271만b/d, '96년에는 285만b/d, '97년에는 308.5만b/d로 꾸준히 늘고 있다. '98년에는 306만b/d, '99년에는 368.5만 b/d로, '98년부터 증가에 박차가 가해지고 있다.

**석유수출입**은 2000년에는 중국의 석유수입량은 원유 140.8만b/d, 제품 37.5만b/d, 합계 178.3만b/d이다. 수출량은 원유 20.8만b/d, 제품 14.4만b/d, 합계는 35.2만b/d이다. 구체적인 수입내역은 중동 77만b/d, 서아프리카 26.8만b/d, 동남아프리카 6.6만 b/d, 북아프리카가 0.4만b/d, 구소련이 9.6만 b/d, 서유럽이 5.2만b/d, 중남미 0.8만 b/d, 미국 0.4만

b/d, 오스트레일리아 3만b/d, 일본 1.3만b/d, 기타 아·태지역 46.4만b/d, 국적불명 0.8만b/d이다. 한편, 석유수출선은 미국 4.4만b/d, 중남미·아프리카 각각 0.4만b/d, 일본 12.3만b/d, 오스트레일리아 0.8만b/d, 기타 아·태지역 16.4만b/d로 아시아 수출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천연가스 확인매장량**은 2000년말 현재 1조 3,700억m<sup>3</sup>, 세계 share 0.9%. 생산량은 277억 m<sup>3</sup>, 세계 세어는 1.2%. 천연가스 가채년수(R/P)는 49.3년이다.

**천연가스 생산량**은 '90년 142억m<sup>3</sup>, '91년 149억 m<sup>3</sup>, '92년 151억m<sup>3</sup>, '93년 162억m<sup>3</sup>, '94년 166억 m<sup>3</sup>, '95년 176억 m<sup>3</sup>, '96년 199억m<sup>3</sup>, '97년 222억 m<sup>3</sup>, '98년 223억m<sup>3</sup>, '99년 243억m<sup>3</sup>, 2000년 261억 m<sup>3</sup>로 꾸준히 늘고 있다. 소비량은 '90년 147억m<sup>3</sup>, '91년 149억 m<sup>3</sup>, '92년 151억m<sup>3</sup>, '93년 162억m<sup>3</sup>, '94년 166억m<sup>3</sup>, '95년 177억m<sup>3</sup>으로 생산량과 연동하고 있었다. '96년 177억m<sup>3</sup>, '97년 193억m<sup>3</sup>, '98년 193억m<sup>3</sup>, '99년 214억m<sup>3</sup>, 2000년 248억m<sup>3</sup>로 늘었는데, '96년부터 생산량이 소비량을 웃돌고 있다. 2003년에는 pipeline이 완성된다고 한다.

**석탄 확인매장량**은 1,145억ton(세계 share 11.6%), 생산량은(석유환산) 4억 9,800만ton(23.3%), R/P는 116년이다. 생산량은 '96년 6억9,150만ton, 소비량은 '96년 6억 7,690만ton을 peak로 감소하고 있다. 1차 에너지에서 차지하는 석탄 비중이 높은 것도 중국의 특색인데, 석유와 천연가스로 shift되는 것이 눈에 띈다. 소비량은 2000년에 4억 8,010만ton이며, 남은 석탄은 일본으로 수출하고 있다. 원자력 소비량은 석유환산으로 92년 10만ton에서 2000년에는 430만ton(세계 share 0.7%)으로 증가했다. 수력의 소비량은 석유환산으로 90년 1,090만ton에서 2000년에는 1,900만ton으로 늘었다. 1차에너지 소비량은 석탄 소비가 감소로 전환된 96년 8억 8,700만ton(석유환산)에서 2000년에는 7억 5,270만 ton으로 감소했다.

## 중국의 정치상황

중국의 면적은 960만km<sup>2</sup>로 일본의 약 26배. 인구는 2000년 11월 현재 12억 6,583만명. 한족이 92%를 차지하고 있고 그 외 55개 소수민족으로 이루어져 있다. 불교, 이슬람, 기독교 등 3대종교가 보급되어 있고, 언어는 한어이지만, 북경어, 광둥어 등을 사용한다. 공산당 총서기 강택민 중심의 집단지도체제 하에 인민민주공화제를 채택하고 있다. 의회는 전국 인민대표대회. 국가주석은 강택민, 부주석은 胡锦涛. 政協主席은 李瑞環, 총리는 朱鎔基이다.

주요산업은 농업, 에너지산업, 철강, 섬유, 식품. 쌀 수입품에 의해 국내산업이 타격을 받은 일본이 버섯이나 타올 등 세이프가드를 발동했기 때문에, 중국 측에서 강한 비난을 받았다. 중국의 GDP는 2001년에는 약 1조\$(일본의 4분의 1), 경제성장률은 7.3%로 높다. 물가상승율은 0.7%로 낮다. 인구가 많은 중국에서는 1인당 GDP가 850\$로 여전히 낮다. 실업률은 도시지역 등록 기준으로 3.6%. 중국은 물가상승을 막기 위해 내륙지역 출신 노동자를 계약기간이 끝나면 내륙지역으로 송환하여, 임금상승을 억제하고 있다고 한다. 2001년의 총무역액은 수출이 2,662억\$, 수입 2,436억\$로 무역흑자를 기록하고 있다. 주요 무역품목을 보면, 수출은 섬유·섬유제품, 기계전기 제품, 석유·석유제품, 섬유원료, 수입은 공업용기계, 자동차, 통신기기이다. 주요 무역상대국은 수출은 미국, 홍콩, 일본, 일본, EU. 수입은 일본, EU, 미국, 한국. 통화는 인민원. ☉

(Oil Report, 2002. 5. 6)